

### ■ EU, 농어업각료이사회 결과

2009년 12월 14일~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농어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EU 회원국 간의 2010년 주요 농어업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① 2010년 어획가능 총량 및 국가별 쿼터 결정, ② 대러시아 EU 농산물 수출문제에 관한 논의, ③ EU 공동농업정책의 간소화(CAP simplification), ④ 공동농업정책의 미래에 대한 논의, ⑤ 동물 복지 라벨링(인증) 제도의 도입 등이었다. <자료 : 주유럽국가대표부>

### ■ 일본, 국산 식료품 포인트제 시범 시행

국산 식료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쌓여 경품과 교환하거나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선물에 응모할 수 있는 '국산 식료품 포인트 제도'가 1월 7일~2월 28일 시범 시행된다. 농림수산성이 지원하는 이 제도는 토쿠스토아, 이토요카도, 다이에 등 수도권의 80개 점포에서 실시하며, 국산 농산물 소비층을 확보해 식료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2009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 점포와 대상 상품이 적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범 점포를 6.6배로 늘릴 예정이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 ■ 중국, 최대 규모 화훼온실 건설 착공

정부는 산동성 죽목시에 총투자액 5억 위안에 달하는 '화훼교역시장 및 북방 최대 규모의 열대 식물관광원' 프로젝트를 착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중·미 양국이 공동 투자하며, 총면적은 9,000평이고,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발전한다. 화훼온실이 완공되면 교역 서비스 및 국내외 시장의 화훼 도소매를 담당하게 된다. <자료 : 청도신문망>

### ■ 중국, 유기농 재배 업체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중국의 유기농 재배업체들이 최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ACFTA(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농림부 측은 중국 투자업체가 선진기술을 사용한 GAP(Good Agriculture Practice) 제품, 유기농법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영농산업에 새로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 : 자카르타 포스트 / 싱가포르 aT센터>

### ■ 대만, 2010년부터 탄소라벨링 제도 실시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빠르면 2010년 3월부터 탄소라벨링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온실기체감량법(溫室氣體減量法)'의 입법이 완성되는 대로 상품 분류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라벨 부착은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식품, 비스킷, 세정용품 등 식품 및 생활용품류에 우선 장려할 예정이다. <자료 : 타이베이코리아비즈니스센터>

### ■ 베트남, 바이오매스 자원 잠재력 및 개발 현황

베트남 무역산업부의 에너지부에 의하면, 바이오매스자원으로 얻어지는 전력 생산과 열병합발전의 잠재력은 약 800mw로 예상되며 그 중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원료는 쌀 껍질과 사탕수수로 각각 200mw 및 25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바이오연료 관련 목표는 2010년까지 실험 생산에서 E5(95% 휘발유와 5% 에탄올) 10만톤

과 B5(95% 디젤과 5% 바이오디젤) 5만톤 생산 및 사용, 국내 휘발유와 석유 소비 0.4% 증축, 2015년까지 B5와 E5의 500만톤 혼합에 필요한 에탄올 및 식물성 유지 25만톤 생산, 국내 휘발유와 석유 소비 1% 증축, 2025년까지 국내 휘발유와 석유 소비의 5%를 충족할 수 있는 180만톤의 에탄올 및 식물성 유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료 : 호치민코리아 비즈니스센터>

## ■ 일본, 생물다양성 지원 법안 제출

일본 정부는 1월 14일 농산어촌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힘쓰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법안 제출의 주요 목적은 생물 보호에 대한 국내 체계를 확립하고,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결국회의(나고야에서 10월 개최 예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 ■ 중국, 2010년 3농 문제 대책에 최우선 역점

중국에서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2003년 이래로 6년 연속 중점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도농간 균형 발전, 도농격차 축소, 농민생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3농 우대강화정책이 2월초에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① 농촌인구 이동 촉진 : 호구제도 완화를 통해 농촌인구 도시이주, 취업, 거주문제 해결, ② 유통 촉진 : 농업보조금 제도 정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농민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수혜택 등 농촌 신규금융조직 육성, 농촌 융자난 해소, ③ 유통폐단 해소를 통한 농민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홍콩경제일보>

## ■ 미국, 낙농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계획

미국 농무부 장관은 지난 12월 15일 낙농업자들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낙농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하는 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농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무부는 연구 계획, 설비 이용의 유연성 허용, 낙농업자들의 혐기성 소화조 이용 확대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화조를 설치할 후보자들 중 약 2%의 낙농업가만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농무부는 정기적으로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200여 가구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 Agra Europe>

## ■ EU, 식품공급체인 개선에 노력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이사회에서 식품공급체인의 기능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각국 장관에게 보고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본 주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인이 의장국 지위를 맡는 1월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 계획의 기본 취지는 식품체인에서의 잠재적인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관행을 식별해내고 대책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초까지 이어진 농산물가격 급등이 원인이 되었다.〈자료 : Agra Europe〉

### ■ EU, 수입제품 탄소관세 재거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EU 내에서 점차 재거론 되기 시작하였다. 탄소관세는 지난해 7월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어떤 국제협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탄소관세 부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며, 2010년 말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있다.〈자료 : Eu Activ, EU Observer 등 종합, 브뤼셀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EU, 일본에 쇠고기 수입 재개 요청

2월 4일 실시한 EU와 일본의 규제개혁 논의에서 EU는 일본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하였다. 이는 광우병 발생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일본이 일부 EU 국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EU는 일본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이미 재개하였음을 지적하면서, EU의 수입 재개 신청을 일본이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이기를 희망하였다.〈자료 : 일본농업신문〉

### ■ EU, 원산지명 명확하게 표기

유럽의 새로운 식품라벨링 제도 확립을 위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실제

원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동하고 있어 표기를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옥스포드 에비덴시아(Oxford Evidentia)의 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제품이 재배된 곳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산지의 실제 의미는 가공 등 식품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진 곳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 재배된 곳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성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자료 : www.foodanddrinkeurope.com〉

### ■ 영국, GMO 실험재배 예정

영국 국립농업식물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Botany)는 시범농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를 재배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캠브리지시에 있는 혁신농장에서 올해부터 GMO 시범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농장에서 밀과 감자를 재배할 예정이다. 영국의 GMO 개발 추진은 정부 수석 과학자인 존 베딩턴(John Beddington)의 '적은 경작지에서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GMO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자료 : www.fwi.co.uk.〉

### ■ 미국, 2010년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 정책 발표

미국 농무부는 지난 1월 26일, 2010년도 집행 예산 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약 2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70여 곳의 무역협회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예산은 농무부 해외농업국의 시장 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과

해외시장개발협력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에 배정되었으며, 해외시장 조사, 해외 무역장벽 제거, 제품 홍보 및 해외 소비자 교육, 신시장 개척 등의 수출 증대 활동에 쓰이게 된다. 미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접근프로그램에 매년 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 농무부 예산 및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예산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 LA aT센터 / USDA>

## ■ 페루, 통신 발전으로 농업소득 증대

최근 3년 동안 페루의 위성전화와 휴대폰 사용 증가에 따라 농가 간의 상호 연락 및 시장과의 연결이 용이해져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바나나, 유카, 옥수수 등 기초 작물의 판매가격이 14.8% 상승하고 생산비용은 22.6% 감소하는 등 통신분야의 성장이 소농 및 빈농층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휴대폰 등의 통신수단이 고립된 지역에 보급되기 이전에는 농민들이 시장정보를 접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간상에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장상황 및 상품가격 관련 정보를 쉽게 얻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El Comercio 종합, 리마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중국, 新식량계획 5천만 톤 증산 목표

중국 북방지역 폭설로 식량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식량생산능력 5천만톤 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식량은 쌀, 밀, 옥수수 등 3대 작물을 지칭한다. 2004년 이후 중국의 연간 식량 재고는 5억톤 수준이며, 2009년에는 5억3천톤에 이르러 식량 자급률이 95%에 달한다. 이번 계획 수립 전, 국무원은 '국가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을 통해 2020년까지 12년간 식량생산량 5천만톤을 증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2020년 식량생산량을 기존 식량증산량에 5천만톤을 추가한 1억톤으로 수정하고, 2020년 1인당 식량 공급량을 395kg으로 목표하고 있다. <자료 : 신보>

## ■ 중국, 환경보호평가보고서 비준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환경보호 업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총체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환경 관리감독의 낙후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환경보호목표책임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추진하여,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① 오염배출 저감활동, ② 중점유역 오염방지, ③ 농촌환경 종합관리 및 토양오염방지, ④ 환경산업 지원 및 환경보호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자료 : 신보>

## ■ 중국, 2010 농촌지원 강화 정책 발표

중국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은 지난 1월 31일 '3농(농촌, 농업, 농민)' 개혁과 관련하여 중앙1호 문건을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으로는 대농민 정책적 신용대출 강화, 농촌주택 건설 및 무료 직업훈련 지원, 우량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전자제품 구입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자료 : 東方早報>

## ■ 태국, 식품산업 활성화로 식품가공기계 수요 증대

태국의 식품가공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선진화된 수준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태국의 식품 수출업체들은 그동안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수입국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왔으며, 식품의약품은 제품등록, 제조인가, 식품라벨 부착, 마케팅 통제 등을 통해 제품에 안전성을 기해왔다. 태국의 식품 및 주류분야가 국내 포장기기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산업은 연간 10~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The U.S. Commercial Service, 태국 관세청,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등 종합, 방콕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태국, 건강음료 시장 활성화

태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음료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에 발맞춰 업체는 새로운 성분의 개발 및 첨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건강음료를 출시하고 있다. 그중 태국 건강음료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은 닭 추출물(Essence of Chicken)과 제비둥지음료(Bird's Nest Beverage) 등 고영양 음료들로 명절, 병문안용, 수험생을 위한 선물 등으로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Kasikorn Research Center, Daily News, Paidoo.net 등 종합, 방콕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EU, 싱가포르·베트남과 FTA 협상 개시 예정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3월 2~3일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양측이 정식으로 FTA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베트남과도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ASEAN 국가들과 개별적인 FTA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ASEAN은 EU의 세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양측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2004~2008년 사이 1,750억유로(2,400억달러)에 달한다. <자료 : Euobserver, EUbusiness 등 종합,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EU, 유기농산물 로고 확정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유기농산물 로고 마련을 위한 온라인 투표 결과, 'Euro-leaf' 로고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월 8일 발표하였다. 동 로고는 금년 7월 1일부터 EU 회원국가에서 생산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부착이 의무화되며,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도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여타 민간·지역·국가차원의 로고와도 병행 부착이 가능하다. EU 집행위는 향후 유기농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동 로고를 규정의 부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행 EU 유기농산물 로고는 인증받은 생산자가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자료 : 주유럽국가대표부>

## ■ 미국, 유기농 우유 기준 대폭 강화

미국 농무부는 지난 2월 12일 유기농 우유와 육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새 규정에 따라 유기농 우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젖소가 1년 중 최소 120일 이상 목초지에서 방목되고 건물사료의 30% 이상을 목초지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농무부는 강화된 새 규정에 따라 유기농가들이 시설을 고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LA aT센터 / LA Times>

## ■ 미국, 플로리다 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 기대

미국 플로리다 주는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로 약 650만 ha에 달하는 농경지와 165억 달러 규모의 야자수 산업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바이오매스의 공급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주에서 생산되는 대체에너지의 70%가 바이오매스에 의해서 생산되며, 플로리다 농업부는 전체 에너지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에 불과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15%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모두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리모델링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그린에너지 생산에 따른 그린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료: biomassmagazine, greenbiz, 플로리다 주립대학, KOTRA 마이애미 KBC 자료종합 등 마이애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 ■ 미, 채소·어류 동시에 기르는 아쿠아포닉 인기

개인 주택에서 채소 재배와 어류 양식을 동

시에 할 수 있는 차세대 순환농법인 아쿠아포닉(Aquaponic)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아쿠아포닉 저널과 같은 잡지의 구독자와 초보자를 위한 가정용 아쿠아포닉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쿠아포닉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면서 물고기를 기르는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자료: 뉴욕 aT센터 / New York Times>

## ■ 미국, 농산물 무역적자 늘어날 전망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신선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향후 10년간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선과채류의 무역적자가 2010년 45억달러에서 2019년 92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높은 수입비율을 차지하는 농산물은 아스파라거스, 오이, 아티초크, 마늘 등의 순이며, 과일은 망고, 파인애플의 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복숭아, 포도, 천도복숭아, 사과, 배, 딸기 등의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뉴욕 aT센터 / The Packer>

## ■ 일본, 20년 후 식료자급률 60% 목표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2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향후 발표 예정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상의 식료자급률(칼로리 기준) 목표로 '10년 후 50%'와 '20년 후 60%'를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높은 수치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침체하고 있는 식료자급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 일본농업신문>

### ■ 일본 자민당,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안 수립

일본 자민당은 2월 24일 「지산지소 등 촉진 법안」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는 목재 이용 추진에 관한 법안」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지산지소 등 촉진 법안」은 일본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6차 산업화 지원 법안」의 대안이 된다. 6차 산업화 지원 법안이 주로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데 반해, 이 법안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폭넓은 지원책으로 '전체 농지를 모두 활용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전량 소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는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법안」은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법안의 대안으로 정부 법안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망라하고 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 ■ 일본, 가공 과일에 장려금 지급

일본 농수산성은 2010년 생과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가공용 과일을 출하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가공과일 수요안정화 긴급지원 대책사업」에 따른 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4억9,200만엔을 책정하여 가공업자와 2년 이상, 연간 출하량 30톤 이상의 계약을 맺고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1kg당 3엔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과일에 비해 가공용 과일의 가격이 낮고, 중간업자 등의 수수료가 1kg당 3엔 정도 들어 이번 장려금은 이 수수료를 수당으로 받는 형식이다. <자료 : 동경 aT센터 / 일본농업신문>

### ■ 베트남, 농수산물 무관세로 일본 수출

베트남·일본 경제협력조약(VJEPA)이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농수산물이 일본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VJEPA 발효 직후, 일본은 농산물 2,020개 품목 중 784개 품목, 대일 베트남 수출액의 67%에대한 관세를 감축하였다. 14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3~5년에 걸쳐 감축하고, 그 외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7~10년 내에 감축할 예정이다. 본 협약의 발효로 베트남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싱가포르 aT센터 / VietNamNet>

### ■ 과테말라, 바이오연료 생산기지로 주목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친환경 바람의 영향으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1년 내내 화창한 기후 환경으로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사탕수수, 자트로파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많은 미국, 유럽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해외기업들이 대체에너지 개발기지로 삼고 있다. <자료 : USDA GAIN report, CEPAL 및 KBC 내부자료 등 종합, 과테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